

竇漢卿의 標幽賦에 대한 연구 (I)

원진희 · 이인영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비계내과

A Literature Review on Pyoyubu (標幽賦) Written by Tu Han Kyoung (竇漢卿) (I)

Jin-Hee Won, In-Young Lee

Dept. of Internal medicine, Wonkwang Hospital,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is to provide a clear interpretation of Pyoyubu (標幽賦) which was written by Tu han kyoung (竇漢卿) during the Kum-Won dynasty of China (A.D 1196-1280).

Methods : The translation was based on Original Chimgudaesung (原本鍼灸大成) and revisals on Chimguchuiyoung (鍼灸聚英), Yukyongbuik (類經附翼), New Chimgudaesung (新鍼灸大成), etc. The critical review part helps to better understand acupuncture & moxibustion world.

Results & Conclusions : The book covered all of the concepts involved in acupuncture theory and techniques. It provides a foundation and remains a key reference work for the current theory of acupuncture.

An in-depth study of the book leads as follow ;

1. To full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se fields.
2. To drawing up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doctors toward patients.
3. To promoting the beneficial effects of acupuncture treatment.

Key words : Pyoyubu, Tu han-kyoung, meridians, Acupuncture, Needling sensation

1. 서 론

標幽賦는 金, 元시기의 竇漢卿이 지은 것인데, 그의 저서인 《鍼經指南》의 첫 권에 실려 있으며, 일찍이 單刊本으로도 遺傳되었다. 《普濟方》, 《鍼灸大全》, 《楊敬齋鍼灸全書》, 《鍼灸聚英》과 《類經附翼》등 명나라 때의 의학서적에도 모두 실려 있다. 竇氏 본인이 일찍이 ‘本賦’에 대하여 註解를 하였

으며, 그 學徒인 王鏡澤이 《重注標幽賦》를 저술하였다. 명나라 洪武 초년에 處洲의 醫學提學 祝伯靜도 일찍이 本賦에 대하여 注를 달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注本들은 모두 실전되었다. 현존하는 註解는 《鍼灸大全》과 《楊敬齋鍼灸全書》와 《鍼灸大成》중에서 볼 수 있다. 《鍼灸大成》에 실려 있는 註解는 《鍼灸大全》의 주해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楊繼洲의 주해는 《鍼灸大全》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다.¹⁾

標幽賦는 鍼灸歌賦의 이름으로 《鍼經標幽賦》가 全名이다.²⁾ 이 賦를 《鍼賦》라고 인용한 곳도 있고³⁾,

· 교신저자: 원진희, 광주시 남구 주월동 543-8번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제3내과
Tel. 062-670-6417, E-mail: wonjh@wonkwang.ac.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Grant [2010]
· 투고 : 2011/02/28 심사 : 2011/03/15 채택 : 2011/03/23

1)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鍼灸大成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4, 174쪽.
2) 安徽·上海中醫學院, 鍼灸學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442쪽.

《刺法》이라고 인용한 곳도 있다.⁴⁾

標는 揭出, 顯出의 뜻이고⁵⁾, 幽는 微妙, 深遠의 뜻이니⁶⁾, 이 賦는 침구이론과 임상에서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간단명료하게 밝히고 드러 내어(標舉) 침구학술의 오묘함(幽微)을 발견하였으므로 標幽賦라고 명명한 것이다.⁷⁾

이 賦는 먼저 經絡을 논하고, 그 다음에 候氣·論鍼·取穴·標本論治·特定穴位·子午流注·補瀉·治療·禁鍼禁灸穴 등을 차례로 배열하여 침구학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일일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후세의 적지 않은 鍼灸理論이 이 賦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賦를 연구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은 고인들의 鍼灸이론의 근원을 파악하고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여 침구치료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一助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I. 연구방법

1. 원문은 《原本鍼灸大成》⁸⁾에 의거하였다.
2. 校勘은 高⁹⁾의 《鍼灸聚英》과 張¹⁰⁾의 《類經附翼》과 林¹¹⁾의 《新鍼灸大成》, 그리고 《鍼灸大成校釋》¹²⁾을 참고하여 校勘하였다.
3. 字句解는 원문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음과 訓을 取擇하였다.
4. 註解는 원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 楊繼洲의 註解를 인용하였다.

5. 번역은 賦體에 맞게 詩文의 형식으로 하였다.
6. 고찰은 원문이나 校勘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III. 연구내용

【원문】拯救⁽¹⁾之法, 妙用者鍼. 察歲時⁽²⁾於天道⁽³⁾, 定形氣⁽⁴⁾於予心.

【字句解】

- (1) 拯救 : 건짐. 구조. 구원함. ○拯은 건질 증.
- (2) 歲時 : 1년의 四時.
- (3) 天道 : 天은 자연계를 가리키고, 道는 규율을 가리킨다. 즉 자연계의 사물변화의 규율이다.
- (4) 形氣 : 形은 형체를 말하고, 氣는 장부조직의 기능을 말한다. 《靈樞·終始》¹³⁾에 “凡刺之法, 必察其形氣.”라고 하였다.

【국역】

목숨을 구하는 방법에
오묘한 쓰임은 침일세.
천도에서 세시를 살피고
마음에서 형기를 정하게.

【원문】春夏瘦而刺淺, 秋冬肥而刺深. 不窮⁽⁵⁾經絡陰陽, 多逢刺禁; 既論臟腑虛實, 須向經尋⁽¹⁾.

【字句解】

- (5) 不窮 : 여기서는 ‘不精通’으로 해석해야 한다.(《鍼灸大成校釋》¹⁴⁾)

【註解】

3) 楊繼洲, 原本鍼灸大成,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131쪽.
 4) 楊繼洲, 앞의 책, 136쪽.
 5) 徐復 등, 古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3, 1553쪽.
 6)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7, 677쪽.
 7)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앞의 책, 175쪽.
 8) 楊繼洲, 앞의 책, 38~50쪽.
 9) 高武, 鍼灸聚英,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210~231쪽.
 10) 張景岳, 類經附翼(類經圖翼), 大成文化社, 1982, 285~287쪽.
 11) 林昭庚, 新鍼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08~150쪽.
 12)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앞의 책, 172~213쪽.
 13)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73쪽.

[1] 既論臟腑虛實，須向經尋：楊繼洲의 註(이하 楊註라 함)에 “장부의 허실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맥의 성쇠를 진단하고, 이미 맥의 성쇠를 알았으면 또한 반드시 그 경맥의 상하를 구별해야 한다.”¹⁵⁾고 하였다.

【국역】

봄여름과 여윈 사람은 천자하고
가을겨울과 살찐 사람은 심자하라.
경락과 음양에 정통하지 않으면 자침의 금기에
봉착하고
장부의 허실을 이미 논하였으면 경락의 상하를
찾아보게

【원문】 原夫⁽⁶⁾起自中焦，水初下漏⁽⁷⁾，太陰爲始，
至厥陰而方終；穴出雲門⁽⁸⁾，抵⁽⁹⁾期門⁽¹⁰⁾而最後。

【字句解】

(6) 原夫：發語詞. ‘살피건대 무릇’, 이런 뜻이다. 보통 해석하지 않는다. ○原是 察也, 살필 원.

(7) 水初下漏：漏는 시간을 계산하는 일종의 방법이다. 고대에 銅壺의 滴漏로 시간을 계산하였다. ‘水初下漏’는 물이 아래로 새어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사람의 氣血이 流注를 시작함을 비유한다. 이것은 또한 氣血이 일정한 시간에 의거하여 각 經脈으로 流注함을 설명한다.(《鍼灸大成校釋》¹⁶⁾)

(8) 雲門：手太陰肺經의 穴이다.

(9) 抵：達也, 다다를 저.

(10) 期門：足厥陰肝經의 穴이다.

【국역】

經氣는 중초에서 일어나는데
시계의 물방울이 처음 나올 때
태음에서 시작하여 췌음에 이르러 끝나니
운문에서 출발하여 기문에 다다라 마치네.

【원문】 正經⁽¹¹⁾十二，別絡⁽¹²⁾走三百餘支^[2]；
正側⁽¹³⁾仰⁽¹⁴⁾伏，氣血有六百餘候⁽¹⁵⁾ [3].

【校勘】

① 仰：《類經附翼》에는 ‘偃’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1) 正經：經絡 중에서 十二經脈을 전체 經絡의 주체로 삼기 때문에 후인들이 그것을 十二正經이라고 부른다.

(12) 別絡：絡脈. ○《鍼經指南》에 “絡은 15개가 있고, 橫絡은 3백여 개가 있으며, 絲絡은 18,000개 있고, 孫絡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¹⁷⁾고 하였다.

(13) 正側：直行과 橫行. 곧게 가는 것과 옆으로 가는 것.

(14) 仰：伏의 相對語이니, 여기서는 ‘浮’의 뜻이다.

(15) 候：觀察, 살필 후.

【註解】

[2] 正經十二，別絡走三百餘支：楊註에 “「십이경」은 곧 수족의 삼음과 삼양의 정경이다. 「별락」은 15낙맥을 제외하고 또 橫絡과 孫絡이 있어 그 실마리를 알 수 없으며 삼백여개의 지맥으로 흩어져서 주행한다.”¹⁸⁾고 하였다.

[3] 正側仰伏，氣血有六百餘候：楊註에 “이것은 경락이 혹은 곧게 혹은 옆으로 주행하고 혹은 표면으로 떠오르고 혹은 몸속으로 잠복하며 기혈은 孔穴을 순행하여 온몸을 일주하는데, 榮은 맥속으로 주행하여 삼백여개의 공혈에서 살필 수 있고 衛는 맥의 밖으로 주행하여 삼백여개의 공혈에서 살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¹⁹⁾라고 하였다.

【국역】

정경은 열하고 돌이며, 別絡은 삼백여개의 支脈

14)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앞의 책, 176쪽.

15) 欲知臟腑之虛實，必先診其脈之盛衰，既知脈之盛衰，又必辨其經脈之上下.

16)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앞의 책, 178쪽.

17) 安徽·上海中醫學院, 앞의 책, 486쪽.

18) 十二經者，即手足三陰三陽之正經也。別絡者，除十五絡，又有橫絡孫絡，不知其紀，散走於三百餘支脈也.

19) 此言經絡，或正或側，或仰或伏，而氣血循行孔穴，一周於身，榮行脈中，三百餘候，衛行脈外，三百餘候.

으로 주행하고

경락은 直、橫、仰、伏하며, 기혈은 육백여개의 孔穴에서 살핀다네.

【원문】手足三陽, 手走頭而頭走足; 手足三陰, 足走^②腹而胸走手.

【校勘】

② 走 : 《類經附翼》에는 ‘在’로 되어 있다.

【국역】

수족의 삼양경은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발로 주행하고

수족의 삼음경은 발에서 복부로, 가슴에서 손으로 주행하네.

【원문】要識迎隨, 須明逆順.

【字句解】

(16) 迎隨 : 鍼尖과 經脈의 순행방향과의 順逆으로 형성된 2종의 手技法이다. 經脈에 逆行하는 것이 迎이니, 이것은 瀉法이다. 經脈에 순행하는 것이 隨이니, 이것은 補法이다. ‘瀉者迎之, 補者隨之’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국역】

영수를 알려거든

역순을 밝혀보게.

【원문】況夫^{③(17)}陰陽氣血, 多少爲最. 厥陰太陽, 少氣多血; 太陰少陰, 少血多氣. 而又氣多血少者, 少陽之分; 氣盛血多^④者, 陽明之位.

【校勘】

③ 夫 : 《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乎’로 되어 있다.

④ 氣盛血多 : 《類經附翼》에는 ‘氣血俱多’로 되어 있다.

【字句解】

(17) 況夫 : 하물며, 게다가, 더구나. 發語詞로 대개 번역하지 않는다.

【국역】

삼음 삼양 기와 혈의

많고 적음 중요하니

꺾음과 태양은 기는 적고 혈 많으며

태음과 소음은 혈은 적고 기 많다네.

기는 많고 혈 적으면 소양의 分屬이오

기와 혈이 다 많으면 양명의 지위일세.

【원문】先詳⁽¹⁸⁾多少之宜, 次察應至之氣. 輕滑慢⁽¹⁹⁾而未來, 沈澹緊而已至^[4].

【字句解】

(18) 詳(상) : 明也, 밝힐 상.

(19) 慢(만) : 解弛, 느슨할 만.

【註解】

[4] 輕滑慢而未來, 沈澹緊而已至 : 楊註에 “침을 刺入한 뒤에 가볍거나 매끄럽거나 느슨한 느낌, 이 3가지를 만나면 곧 진기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오, 침을 자입한 뒤에 무겁거나 깔끄럽거나 팽팽한 느낌, 이 3가지를 만나면 이것은 정기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²⁰⁾라고 하였다.

【국역】

먼저 기혈의 多少를 밝혔으면

다음은 鍼氣의 반응을 살펴보게.

가벼우며 매끄럽고 느슨하면 아직 오지 않았고

무거우며 깔끄럽고 팽팽하면 이미 도래 하였네.

【원문】既至也, 量寒熱而留⁽²⁰⁾疾^{⑤(21)} [5]; 未至也, 據虛實而候^{⑥(22)}氣 [6].

【校勘】

⑤ 而留疾 : 《類經附翼》에는 ‘爲疾留’로 되어 있다.

⑥ 候 : 《類經附翼》에는 ‘誘’로 되어 있다.

【字句解】

(20) 留(유) : 住也, 머무를 유.

(21) 疾(질) : 速也, 빠를 질.

(22) 候(후) : 待也, 기다릴 후.

20) 輕浮滑虛慢遲, 入鍼之後, 值此三者, 乃眞氣之未到; 沈重澹滯緊實, 入鍼之後, 值此三者, 是正氣之已來.

【註解】

[5] 既至也, 量寒熱而留疾 : 楊註에 “이것은 정기가 이미 이르렀으면 반드시 寒症인지 熱症인지 살펴서 침을 시술하라는 말이다. 열증에 자침하여 모름지기 한기를 이르게 하려면 반드시 留鍼하여 음기가 융성하게 이르도록 한 다음, 곧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침을 빼고 그 穴을 막지 않는다. 한증에 자침하여 모름지기 열기를 이르도록 하려면 양기가 융성하게 이르러 침의 기운이 반드시 뜨거워진 다음, 곧 숨을 들이쉬면서 빠르게 침을 빼고 그 穴을 급히 문지른다.”²¹⁾”고 하였다.

[6] 未至也, 據虛實而候氣 : 楊註에 “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면 進法이나 退法이나 按法이나 提法을 사용하여 끌어 당겨서 기가 穴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補瀉法을 시행한다.”²²⁾”고 하였다.

【국역】

기가 이르렀으면 한열을 헤아려서 留鍼과 疾徐를 결정하고

기가 이르지 않았으면 허실에 의거하여 鍼氣의 도래를 기다리게.

【고찰】 楊註에 候氣는 進·退·提·按法을 사용하여 氣를 引導한다고 하였으므로 《類經附翼》에 氣를 유인한다는 의미의 ‘誘氣’가 뜻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원문】 氣之至也, 如魚吞鉤^⑦之沈浮^⑧; 氣未至也, 如閑處幽堂^⑨之深邃^⑩.

【校勘】

⑦ 鉤 : 《類經附翼》에는 ‘釣’로 되어 있다.

⑧ 沈浮 : 《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浮沈’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23) 鉤餌 : 낚싯밥. 낚시에 낚 미끼. ○鉤는 낚

시 구.

(24) 幽堂 : 조용한 방. 깊숙한 곳에 있는 어두운 방.

(25) 深邃 : 깊고 조용함. ○邃는 深遠, 깊을 수.

【국역】

기가 已至면 미끼를 문 고기처럼 부침하고
기가 未至면 유당에 처한 것처럼 한가롭네.

【원문】 氣速至^⑨而速效, 氣遲至^⑩而不治.

【校勘】

⑨ 速至 : 《類經附翼》에는 ‘至速’으로 되어 있다.

⑩ 遲至 : 《類經附翼》에는 ‘至遲’로 되어 있다.

【국역】

기가 빨리 이르면 효과가 빠르고
기가 더디 이르면 치료가 안 되리.

【원문】 觀夫^⑪九鍼^⑫之法, 毫鍼^⑬最微, 七星^⑭上^⑮應, 衆穴^⑯主持^⑰.

【校勘】

⑪ 毫鍼 : 《類經附翼》에는 ‘毫釐’로 되어 있다.

⑫ 上 : 《類經附翼》에는 ‘可’로 되어 있다.

【字句解】

(26) 觀夫 : 살펴보건대 무릇. 저 ...를 살펴보건대. 發語詞이다.

(27) 九鍼 : 《靈樞·九鍼十二原》에 나온다. 鑱鍼, 圓鍼, 鍤鍼, 鋒鍼, 鈹鍼, 圓利鍼, 毫鍼, 長鍼, 大鍼.

(28) 毫鍼 : 길이는 3寸6分(《靈樞》)이고 또는 1寸6分(《甲乙經》)이며, 鍼身이 미세하여 正氣를 상하지 않으므로 寒熱痛痺 등의 각종 병증에 사용한다.

(29) 七星 : 복두칠성.

(30) 衆穴 : 모든 혈.

(31) 主持 : 主管. 主宰. 主張.

21) 此言正氣既至, 必審寒熱而施之. 故經云: 刺熱須至寒者, 必留鍼, 陰氣隆至, 乃呼之, 去除, 其穴不閉; 刺寒須至熱者, 陽氣隆至, 鍼氣必熱, 乃吸之, 去疾, 其穴急捫之.

22) 氣之未至, 或進或退, 或按或提, 導之引之, 候氣至穴, 而方行補瀉.

【국역】

구침의 방법 중에
호침이 미묘하니
칠성(七星)과 상응하며
중혈(衆穴)을 관장하네.

【고찰】 七星上應 : 구침 중에 毫鍼이 가장 미세하며 그 용도가 가장 넓다. 《內經》에서 鍼法과 관련된 이론도 대부분 毫鍼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고인은 毫鍼을 ‘七星’에 비유하여 사람의 七竅과 상응한다고 하였으며, 七星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七竅도 이와 상응하여 위에 있다고 하였다. 호침은 섬세하여 七竅 부근의 腧穴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신의 腧穴에 자침하여 모든 經絡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楊注에 ‘三百六十穴之鍼’이라고 칭하였다.

【원문】 本形⁽³²⁾ 金也, 有鑷⁽³³⁾ 邪扶正⁽³⁴⁾ 之道; 短長水也, 有決癡⁽³⁵⁾ 開滯⁽³⁶⁾ 之機.

【字句解】

(32) 本形 : 본디의 형상. 여기서는 침의 재질을 가리킨다.

(33) 鑷邪 : 邪氣를 제거함. ○鑷은 除去, 없앨 견.

(34) 扶正 : 正氣를 복돋움.

(35) 決癡 : 영긴 것을 터춤.

(36) 開滯 : 막힌 것을 열어줌.

【註解】

[7] 短長水也, 有決癡開滯之機 : 楊註에 “이것은 침(鍼)에 장단이 있는 것은 물에 장단이 있는 것과 같고, 사람의 기혈이 영기어 불통하는 것은 물이 영기어 불통하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물이 불통하면 터주어 호수나 바다로 흘러가게 해야 하고, 기혈이 불통하면 침을 놓아 경맥으로 돌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침은 수(水)와 상응한다

’²³⁾”고 하였다.

【국역】

본래 모양은 金이니, 鑷邪扶正의 이치 있고
길고 짧음은 水이니, 決癡開滯의 기능 있네.

【원문】 定刺象木, 或斜⁽³⁷⁾ 或正; 口藏⁽³⁷⁾ 比⁽³⁸⁾ 火, 進陽⁽³⁸⁾ 補羸⁽³⁹⁾.

【校勘】

③ 斜 : 《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邪’로 되어 있다.

④ 比 : 《類經附翼》에는 ‘養’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37) 口藏 : 침을 입에 머금은 것.

(38) 進陽 : 양기를 보태어 줌.

(39) 羸 : 瘦弱, 여윌 리.

【註解】

[8] 定刺象木, 或斜或正 : 楊註에 “이것은 나무에 비스듬한 가지도 있고 바른 가지도 있듯이 침을 사용할 때도 비스듬히 자침하거나 똑바로 자침하여 차이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²⁴⁾라고 하였다.

[9] 口藏比火, 進陽補羸 : 楊註에 “口氣의 따뜻함은 불의 따뜻함과 같다. 무릇 침을 놓을 때에 반드시 입안에서 침을 따뜻하게 하여 榮衛를 서로 이어지게 하고 자기의 양기를 보태어 그 환자의 여윌고 허약함을 보해야 한다.”²⁵⁾”고 하였다.

【국역】

자법의 결정은 木을 닮으니, 斜刺 혹은 正刺하고
口藏의 방법은 火에 견주니, 進陽하고 補羸하네.

【고찰】 이 단락에서 입에 針을 머금은 口藏의 방법은 현대의 위생관념과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응당 버려야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일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곧 침을 사용할 때 침의 온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鍼體가 너무 차가우면 得氣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3) 此言鍼有長短, 猶水有長短, 人之氣血凝滯而不通, 猶水之凝滯而不通也. 水之不通, 決之使流於湖海, 氣血不通, 鍼之使周於經脈, 故言鍼應水也.

24) 此言木有斜正, 而用鍼亦有或斜或正之不同.

25) 氣之溫, 如火之溫也. 凡下鍼之時, 必口內溫鍼暖, 使榮衛相接, 進己之陽氣, 補彼之瘦弱.

【원문】循機⁽⁴⁰⁾捫⁽⁴¹⁾而可塞^⑥以象土^[8]；實應五行而可知。

【校勘】

⑮ 循機捫而可塞：《類經附翼》에는 ‘循機捫塞’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40) 循機：機는 機械이니, 여기서는 經脈을 가리킨다. 循은 循法이다. 손으로 경맥을 위아래로 어루만져 기혈이 왕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循은 撫也, 어루만질 순.

(41) 捫：捫法이니, 발침한 뒤에 손가락으로 經穴을 문질러 막는 것이다.

【註解】

[8] 循機捫而可塞以象土：楊註에 “「機捫」은 자침을 마친 뒤에 손으로 그 穴을 문질러 막는 것이니, 마치 흙으로 틀어막는 의미와 같다. 그러므로 침은 土와 상응한다.”²⁶⁾고 하였다.

【국역】

循法 쓰고 경혈 막아 土를 상징하니
실제로는 오행과 상응함을 알 수 있네.

【고찰】楊註는 원문을 그대로 인정하고 機捫을 하나의 단어로 해석하였으나 본문이 賦體임을 생각하면 《類經附翼》과 같이 “循機捫塞以象土”로 해야 “實應五行而可知”와 對句를 이룬다.

【원문】然⁽⁴²⁾是三寸^⑥六分，包含妙理；雖細楨^⑩⁽⁴³⁾於毫髮⁽⁴⁴⁾，同⁽⁴⁵⁾貫多岐^[9]。

【校勘】

⑯ 三寸：《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 모두 ‘一寸’으로 되어 있다.

⑰ 楨：《類經附翼》에는 ‘擬’로 되어 있다.

【字句解】

(42) 然：然則. 그렇다면. 그런즉.

(43) 細楨：여기서는 細直의 뜻이다. ○楨은 옛 날에 築牆에 사용한 立木이다. 담치는 나무 정.

(44) 毫髮：가는 털과 모발.

(45) 同：齊也, 함께 동.

【註解】

[9] 雖細楨於毫髮，同貫多岐：楊註에 “楨은 침의 줄기이다. 岐는 기혈이 왕래하는 길이다. 침의 줄기는 비록 호발처럼 미세하지만 모든 경락의 기혈이 도는 길을 관통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²⁷⁾라고 하였다.

【국역】

그런즉 이 3치 6분에 오묘한 이치가 내포되어 있고

비록 호발보다 가늘어도 여러 갈림길을 모두 관통하네.

【고찰】三寸六分：《靈樞·九鍼十二原》에 毫鍼의 길이는 三寸六分이라고 하였으나 《靈樞·九鍼論》에는 一寸六分으로 되어 있고, 《甲乙經》과 《醫心方》에도 一寸六分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임상에서도 一寸에서 二寸까지의 毫鍼을 많이 쓴다. 그러므로 《類經附翼》에 의거 응당 ‘一寸六分’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원문】可平⁽⁴⁶⁾五臟之寒熱，能調六腑之虛實^⑩。

【校勘】

⑱ 虛實：《類經附翼》에는 ‘實虛’로 되어 있다.

【字句解】

(46) 平：治也, 다스릴 평.

【국역】

오장의 한열을 다스릴 수 있고
육부의 허실을 조절할 수 있네.

【원문】拘攣⁽⁴⁷⁾閉塞⁽⁴⁸⁾，遣^⑩⁽⁴⁹⁾八邪⁽⁵⁰⁾而去矣；寒熱痺痛^⑩，開四關⁽⁵¹⁾而已⁽⁵²⁾之。

【校勘】

⑲ 遣：《類經附翼》에는 ‘追’로 되어 있다.

⑳ 痺痛：《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痛痺’

26) 機捫者，鍼畢以手捫閉其穴，如用土填塞之義，故言鍼應土也。

27) 楨，鍼之幹也。岐，氣血往來之路也。言鍼之幹，雖如毫髮之微小，能貫通諸經血氣之道路也。

로 되어 있다.

【字句解】

(47) 拘攣：筋脈之拘束. 힘줄과 맥이 땅기는 것이다.

(48) 閉塞：氣血之不通. 기혈이 불통하는 것이다.

(49) 遣：派遣, 보낼 건.

(50) 八邪(팔사)：奇穴의 이름. 八關이라고도 한다. 手背의 指縫 사이에 있는데, 赤白肉際에 해당한다. 한손에 4穴씩, 양손에 모두 8穴이므로 이처럼 命名한 것이다. 위쪽으로 斜刺하되 0.5~1寸 길이로 자침한다. 또는 三稜鍼으로 點刺하여 출혈시킨다.

(51) 四關：合谷과 太衝.

(52) 已：病愈, 병 나아 이.

【국역】

구련과 폐색은 八邪를 보내어 제거하고 한열과 비통은 四關을 열어서 낮게 하게.

【원문】凡^㉑刺者, 使本神⁽⁵³⁾朝⁽⁵⁴⁾而後入; 既刺也, 使本神定而氣隨⁽⁵⁵⁾. 神不朝而勿刺, 神已定而可施.

【校勘】

㉑ 凡：《類經附翼》에는 ‘未’로 되어 있다.

【字句解】

(53) 本神：精神. 神이 一身의 根本이 되므로 ‘本神’이라 한다.

(54) 朝：여기서는 匯聚의 뜻이다. 《書》禹貢에 “江漢朝宗於海”라고 하였다.

(55) 氣隨：施鍼行氣한다는 뜻이다.

【국역】

자침 전엔 本神이 모인 뒤에 침을 놓고 자침 후엔 本神이 안정된 뒤 行氣 하라. 정신이 모이지 않으면 자침 말고 정신이 안정된 뒤에 施鍼하게.

【고찰】‘凡刺者’는 뒤의 ‘既刺也’와 對句를 이루며 刺鍼의 전후를 말하므로 《類經附翼》에 의거 ‘未刺者’로 고치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다.

【원문】定脚處, 取氣血爲主意⁽⁵⁶⁾; 下手⁽⁵⁷⁾處, 認水木^㉒是根基.

【校勘】

㉒ 水木：《類經附翼》에는 ‘水火’로 되어 있다.

【字句解】

(56) 取氣血爲主意：이것은 자침할 때 本經의 氣血多少를 고려해야 함을 가리킨다. 多氣多血한 經에 자침할 때는 出氣와 出血이 가능하지만, 少氣한 經에 자침할 때는 出氣해서는 아니 되고, 少血한 經에 자침할 때는 出血해서는 안 된다.

(57) 下水：用鍼. 침을 사용함. 침을 놓음.

【註解】

[10] 水木：楊註에 “水는 어미이고, 木은 자식이니, 水는 木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미를 구제하여 그 부족한 것을 돕고 자식을 탈진시켜 그 넉넉한 것을 다스릴 것이니, 이것은 침을 사용할 때 반드시 먼저 子母相生의 뜻을 알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수, 목만 거론하고 토, 금, 화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생략한 글이다.”²⁸⁾라고 하였다.

【국역】

발의 穴處를 정할 때는 기혈을 주의하여 취급하고 손의 穴處에 자침 할 땐 水木이 근본임을 인식하게.

【원문】天地人三才也, 湧泉同璇璣百會; 上中下三部也, 大包與天樞地機.

【국역】

천, 지, 인 삼재는 용천과 선기, 백회이고 상, 중, 하 삼부는 대포와 천추, 지기일세.

【고찰】頭頂에 병이 있으면 百會를 취하고 胸

28) 水者母也, 木者子也, 是水能生木也. 是故濟母裨其不足, 奪子平其有餘, 此言用鍼, 必先認子母相生之義. 舉水木而不及土金火者, 省文也.

腹에 병이 있으면 璇璣를 취하고 脚膝에 병이 있으면 湧泉을 취한다. ‘백회’와 ‘선기’, ‘용천’ 3혈은 天地人 三부의 병을 다스리는데, 取上治下하고 取下治上하거나(예를 들면 湧泉으로 두통을 치료하고 百會로 脫肛을 치료한다.) 또는 取上治上하고 取下治下한다.(예를 들면 百會로 頭風을 치료하고 湧泉으로 足과 腹의 질병을 치료한다.) ○‘대포’와 ‘천추’와 ‘지기’는 인체 내부의 上中下 三部를 주관하니, 또한 按部取穴하여 상중하 삼초의 질병을 치료한다.

【원문】陽蹻陽維并督帶^㉓, 主肩背腰腿在表之病; 陰蹻陰維任衝脈^㉔, 去心腹脇肋在裏之疑⁽⁵⁸⁾.

【校勘】

㉓ 督帶 : 《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督帶’로 되어 있다.

㉔ 衝脈 : 《類經附翼》과 《鍼灸聚英》에는 ‘衝脈’로 되어 있다.

【字句解】

(58) 疑(의) : 疾也, 질병 의.

【국역】

양교, 양유와 독, 대맥은 어깨와 등, 허리와 허벅지의 表病을 주관하고

음교, 음유와 임, 충맥은 가슴과 배, 옆구리와 갈비의 裏病을 제거하네.

【고찰】 고대의 의사들은 經脈交會穴의 원리와 임상 경험을 근거로 四肢에서 8개의 “八脈交會穴”을 정하였다. 예를 들면 陽維脈의 병에는 外關穴을 취하고, 陰維脈의 병에는 內關穴을 취하고, 帶脈의 병에는 臨泣穴을 취하고, 衝脈의 병에는 公孫穴을 취하고, 陰蹻脈의 병에는 照海穴을 취하고, 陽蹻脈의 병에는 申脈穴을 취하고, 督脈의 병에는 後溪穴을 취하고, 任脈의 병에는 列缺穴을 취한다. 이것은 十二經脈의 腧穴로 奇經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원문】二陵⁽⁵⁹⁾二蹻⁽⁶⁰⁾二交⁽⁶¹⁾, 似續而交五太^㉕

⁽⁶²⁾; 兩間⁽⁶³⁾兩商⁽⁶⁴⁾兩井⁽⁶⁵⁾, 相依⁽⁶⁶⁾而別兩支⁽⁶⁷⁾.

【校勘】

㉕ 五太 : 《鍼灸聚英》과 《新鍼灸大成》과 《鍼灸大成校釋》에는 ‘五大’로 되어 있다.

【字句解】

(59) 二陵 : 陰陵泉과 陽陵泉.

(60) 二蹻 : 陰蹻脈과 陽蹻脈.

(61) 二交 : 陰交와 陽交.

(62) 五太 : 五體. 즉 手足과 頭.

(63) 兩間 : 二間과 三間.

(64) 兩商 : 少商과 商陽.

(65) 兩井 : 天井과 肩井.

(66) 相依 : 서로 의지함.

(67) 兩支 : 手之兩肢.

【국역】

‘이릉’과 ‘이교’, ‘이교’는 이어진 듯 오체와 사귀고 ‘양간’과 ‘양상’, ‘양정’은 의지하며 두 팔을 가르네.

【원문】大抵^{㉖(68)}取穴⁽⁶⁹⁾之法, 必有^㉗分寸⁽⁷⁰⁾; 先審自意, 次觀肉分⁽⁷¹⁾ [11].

【校勘】

㉖ 大抵 : 《類經附翼》에는 없다. 《鍼灸聚英》에는 ‘足見’으로 되어 있다.

㉗ 必有 : 《類經附翼》에는 ‘須明’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68) 大抵 : 부사로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대개’, ‘대부분’이라고 해석한다.

(69) 取穴 : 穴의 위치를 정하여 잡는 방법.

(70) 分寸 : 1분과 1寸. 여기서는 ‘치수’를 가리킨다.

(71) 肉分 : 근육 사이 경계 부위의 紋理. 分肉.

【註解】

[11] 先審自意, 次觀肉分 : 楊註에 “먼저 환자가 무슨 병인지 어떤 경락에 속하는지 어떤 穴을 사용할 것인지를 살피되 내 마음에서 살필 것이요, 그 다음에 환자의 肥瘦·長短과 대소의 分肉과 骨節과 髮際의 사이를 살피고 헤아려서 取穴을 한

다.²⁹⁾”라고 하였다.

【국역】

取穴의 방법에는分寸이 있으니
自意를 살핀 다음肉分을 살피게.

【원문】或伸屈而得之，或平直⁽⁷²⁾而安定^[12] .

【字句解】

(72) 平直 : 곧고 바름.

【註解】

[12] 平直而安定 : 楊註에 “平直은 혹은 바로 누워서 取穴하고 혹은 바로 앉아서 취혈하고 혹은 바로 서서 취혈해야 穴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니, 예를 들면 입술 아래 오목한 가운데 있는 ‘승장’과 같은 것이다.³⁰⁾”라고 하였다.

【국역】

혹은 굴신해야 穴을 얻고
혹은 평직해야 안정되네.

【원문】在陽部⁽⁷³⁾筋骨之側，陷下爲眞；在陰分⁽⁷⁴⁾鄰臑之間，動脈相應.

【字句解】

(73) 陽部 : 몸의 바깥쪽 면. 여기서는 ‘陽經’을 가리킨다.

(74) 陰分 : 음의 영역. 몸의 안쪽 면. 여기서는 ‘陰經’을 가리킨다.

【국역】

바깥쪽 근골의 곁에 있는 穴은 움푹 파인 곳이 眞穴이요
안쪽의 빈틈과 오금 사이 穴은 동맥이 상응하는 곳이라네.

【원문】取五穴用一穴而必端，取三經用一經而可正.

【국역】

穴은 다섯을 잡아서 하나를 써야 올바르게
經은 세 개를 잡아서 하나를 써야 바르다네.

【고찰】 이것은 取穴할 때의 주의 사항을 말한 것이다. 먼저 해당되는 穴의 상하좌우의 4개 穴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四至」라고 한다. 주위의 4개 穴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에서 穴을 잡아야 정확한 穴位를 잡을 수 있다.³¹⁾

【원문】頭部與肩部詳分，督脈與任脈易定.

【국역】

머리와 어깨는 자세하게 구분하고
독맥과 임맥은 정하기가 아주 쉽네.

【원문】明^㉞標與本⁽⁷⁵⁾，論刺深刺淺之經；住痛移疼，取相交相貫之徑.

【校勘】

㉞ 明 : 《類經附翼》에는 ‘察’로 되어 있다.

【字句解】

(75) 標本 : 표본은 하나가 아니니, 六經의 표본도 있고 천지음양의 표본도 있고 傳病의 표본도 있다.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곁은 標이고 속은 本이며, 양은 표이고 음은 본이며, 양인 육부는 표이고 음인 오장은 본이며, 오장육부는 속에 있어 본이 되고 경락은 곁에 있어 표가 된다. 병으로 말하면 먼저 병을 받은 것은 本이 되고 나중에 傳變된 것은 標가 된다.

【국역】

標本을 밝혀서 深刺나 淺刺할 경락을 의론하고
통증을 멈출 때 相交나 相貫의 경로를 취한다네.

【고찰】 침으로 止痛할 때 手技法에 陰陽交貫法(先左轉, 用九數, 後右轉, 用六數)이 있고, 選經用穴에 經絡交貫法이 있다. 인체의 경맥은 紆曲하여 走行하므로 2개의 經이나 혹은 여러 개의 經이 交會하는 腧穴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腧穴은 전신에

29) 先審病者是何病? 屬何經? 用何穴? 審於我意; 次察病者, 瘦肥長短, 大小肉分, 骨節髮際之間, 量度以取之.

30) 平直者, 或平臥而取之, 或正坐而取之, 或正立而取之, 自然安定, 如承漿在脣下宛宛中之類也.

31) 林昭庚, 앞의 책, 127쪽.

100여개 있는데 머리에 특히 많다. 1개의 穴이 여러 經과 通하므로 이러한 穴은 여러 經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IV. 결 론

《標幽賦》는 예로부터 가장 널리 流轉되고 활용된 歌訣로서 중요한 침구이론을 대부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연구하여 올바르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은 침구이론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賦》를 통하여 고인들의 침구이론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임상에서 원활하게 활용하여 침구치료의 효과를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楊繼洲. 原本鍼灸大成. 대구 :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2.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鍼灸大成校釋. 北京 :

-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林昭庚. 新鍼灸大成.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4. 高武. 鍼灸聚英.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5. 李梴.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 南山堂. 1982.
6. 張景岳. 類經圖翼(類經附翼). 서울 : 大成文化社. 1982.
7. 安徽·上海中醫學院. 鍼灸學辭典.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0.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 民衆書林. 1997.
11. 徐復 등. 古漢語大詞典. 上海 : 上海辭書出版社. 2003.
12. 成樂箕. 八十一難經解釋(難經集註). 서울 : 高文社. 1982.